

# 歐陽修의 「瀧岡阡表」와 朝鮮後期 碑誌文

안 순 태 \*

<目次>

- |                    |                        |
|--------------------|------------------------|
| I. 서론              | III. 「瀧岡阡表」의 특징과 愛好 要因 |
| II. 歐陽修 碑誌文에 대한 평가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문인들과 士大夫家 여성들 사이에서 애호되던 구양수의 비지문의 특징과 그 애호 요인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후기에 구양수의 비지문은 김창협 등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으며 특히 「瀧岡阡表」는 名文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조선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지문은 전통적 유교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여성상을 구현하거나 작자의 情에 의거하여 망자의 일상 체험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적인 조선후기 여성 묘주 비지문은 대체로 전자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필자는 구양수의 비지문, 그 가운데 특히 「瀧岡阡表」가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조선후기 문인들과 士大夫家 여성들 사이에서 비지문 창작의 典範으로 기려졌던 것에 주목하고 「瀧岡阡表」의 어떠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것이 조선후기 비지문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폈다.

「瀧岡阡表」는 구양수가 부친 사후 60년, 모친 사후 17년 뒤에 쓴 글로 모친의 傳言을 토대로 부친과 모친의 德을 기술한 墓表이다. 이 글은 조선후기 남성 문인들뿐 아니라 士大夫家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애호되었다.

\* 세종대학교 강사 / ansunte@hanmail.net

남성 문인들은 이 글이 墓主 死後 일정 기간이 지나 지어진 점에 주목하여 부모 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의 비지문을 지을 때 구양수의 이 글이 지어진 경위를 빈번히 언급하며 선례로 삼고 있다. 또 이 글에서 구사하고 있는 傳言의 再演 기법이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한편 士大夫家 여성들은 이 글이 전통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이 글에 구사된 傳言의 再演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즉 여성이 남성의 삶을 기술하는 주체로 등장하여 보다 주체성을 띠는 존재로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을 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가 여성들이 자식에게 여성 자신의 死後 이와 같은 글을 지어줄 것을 당부한 몇몇 예가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후기에 들어서 여성이 비지문 창작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던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

구양수의 이 글은 모친의 傳言에 기대어 부모의 德을 기린 것으로 자칫 단조롭고 추상적인 나열에 그칠 수 있는 부모의 德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李緯가 구양수의 이 글을 典範으로 삼아 부모의 비지문을 작성한 예 등을 통해 구양수의 이 글이 조선후기 비지문 작성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朝鮮後期, 碑誌文, 墓誌銘, 墓表, 歐陽修, 瀧岡阡表, 李緯

## I. 서론

조선후기 碑誌文의 변모 양상은 특히 墓誌銘의 창작 양상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亡者의 生平 가운데 주요한 공적을 기록하고 망자의 德을 顯彰할 목적으로 지어지던 묘지명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러 측면에서 변모를 보이게 된다. 현창할 덕조차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부치는 묘지명을 짓는가 하면<sup>1)</sup> 世系나 生沒年 등 묘지명의 핵심

1) 정약용이 각각 세 살과 네 살에 죽은 자식들에 대해 지은 「幼子懼群鑿銘」, 「農兒擴志」 등이 그 예가 된다.

요소로 여겨져 오던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묘지명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sup>2)</sup> 묘지명 제작의 핵심 절차인 ‘청탁 절차’ 없이 묘지명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지은 묘지명이 망자의 덕을 현양하는 것이기는 커녕 망자를 힐난하는 내용을 담은 글도 나타났다.<sup>3)</sup> 이러한 예들은 모두 묘지명이 조선후기에 들어서 그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문예성 높은 글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능이 약화되고 문예성이 강화되는 이러한 경향은 비단 묘지명에 국한하여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墓表나 行狀, 祭文 등에 이르는 碑誌文 전반, 더 나아가 인물 기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묘주를 대상으로 비지문을 짓는 전통은 중국의 경우 韓愈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宋代 歐陽修, 明代 歸有光이나 錢謙益 등이 그 명맥을 이었다.<sup>4)</sup> 우리나라에서 여성 묘주에 대해 묘지명을 짓던 관행 역시 그 역사가 짧지 않다. 고려 전기부터 여성 묘주 묘지명이 등장하였는데 1110년에 鄭克恭(?)이 지은 「鄭僅妻金氏墓誌銘」이 최초의 여성 묘주 묘지명으로 보고되어 있다.<sup>5)</sup> 이후 고려 전후기에 걸쳐 적지 않은 수의 여성 묘주 묘지명이 지어졌는데,<sup>6)</sup> 고려 전기 묘지명에는 여성이 가문 사

- 
- 2) 박지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3) 남공철의 「同知中樞府事安君墓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拙稿, 「南公轍의 傳狀碑誌文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68-73. 참조.
  - 4) 초기의 여성 묘주 묘지명으로는 韓愈가 자신의 넷째딸을 두고 지은 「女孿壙銘」, 어머니 대신 자신을 길러준 유모를 두고 지은 「乳母墓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혜선, 「조선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pp.10-11. 참조.
  - 5) 손여림, 「고려시대 여성 묘지명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p.9. 표1-① 참조.
  - 6) 고려 시대 여성 묘주 묘지명에 대해서는 손여림, 위의 논문; 김보경, 「이색의 여성 인식-여성 묘주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8, 우리한문학회, 2003. 등 참조. 손여림의 앞의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지어진 여성 묘주 묘지명은 총 49편에 달한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문집 및 시문의 양을 고려하면 고려시대부터 여성 묘주에 대해 묘지명을 짓는 것이 결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람들을 다스리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능동적인 여성상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데 반해 고려 후기 묘지명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순종적이고 온순한 여성상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sup>7)</sup> 고려 후기 여성 묘주 묘지명의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유교의 도덕 규범에 더욱 충실한 여성상이 구현되기도 하였다.<sup>8)</sup> 조선 후기에 들어서 문인의 강한 창작 욕구에 의해 지어진 일련의 여성 묘주 묘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자의情에 의거하여 망자의 일상 체험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sup>9)</sup> 이러한 특징은 분명 조선후기 여성 묘주 비지문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지문은 여전히 유교적 도덕률에 충실한 전통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전통적 규범 가치에 충실한 여성상을 드러낸 조선후기 대다수의 여성 묘주 비지문은 과거의 창작 관행을 충실히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 조선후기 여성들은 여성 묘주 비지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필자는 이와 관련해, 구양수의 비지문이 조선후기에 여성들, 특히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애호된 점과 관련, 구양수의 비지문이 조선후기 여성 묘주 비지문을 포함한 비지문 창작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후기에 구양수의 비지문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를 살피고, 조선후기 비지문, 특히 여성을 포함한 부모의 비지문 창작시에 典範으로 떠오른 구양수의 「瀧岡阡表」의 서술 의식과 기법상의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 조선후기에 「瀧岡阡表」의 어떠한 특징이 특히 각광받았는가를 토대로 조선후기에 지어진 비지문이 실제로 「瀧岡阡表」의 특징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

7) 손여림, 위의 논문, 제V장 참조.

8) 조선시대 여성 묘주 묘지명의 서술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는 김기림, 「조선시대 여성묘지명에 나타난 서술원리와 그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참조.

9) 강혜선, 앞의 논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지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에 전통적 도덕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비지문이 지향하고자 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歐陽修 碑誌文에 대한 평가

조선후기에 구양수의 碑誌文을 특히 고평한 이는 金昌協이다. 김창협은 구양수의 비지문을 ‘간명하면서도 갖출 것은 갖추고, 상세하면서도 번잡하지 않다’고 하여 王世貞의 비지문과 대비하면서 높이 평가한 바 있다.<sup>10)</sup> 구양수의 비지문은 망자의 삶과 관련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 한두 가지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풍부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자와 관련된 자질구레한 사실들을 특징 없이 나열하는 단조로운 서술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黃夢升墓誌銘」이나 「瀧岡阡表」, 「南陽郡縣謝氏墓誌銘」 등 그의 비지문 뿐 아니라 그의 인물기사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면모이다.<sup>11)</sup>

구양수의 비지문 가운데 「瀧岡阡表」나 「南陽郡縣謝氏墓誌銘」 등은 여성이 주요하게 부각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글들인데, 이 두 편은 조선 후기에 名文으로 칭송받았을 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지문 창작의 典範 구실을 했다. 물론 「瀧岡阡表」는 구양수의 부친과 모친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글이고 주요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 부친의 덕이지만, 모친의 전언을 통해 부친의 德을 구현하는 기법상의 특징이 가지

10)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外篇, “今讀歐公諸碑誌,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而不繁, 意度閒暇, 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 又往往如畫. 茅鹿門以爲得太史公之髓者, 此也. 弇州不知古人提挈錯綜之妙, 而只欲以句字, 步趣摸擬, 故其爲碑誌叙事, 不問巨細輕重, 悉書具載, 煩冗猥瑣, 動盈篇牘, 綱領眼目, 未能掣出點注, 首尾本末, 全無伸縮變化, 其所自以爲風神景色者, 不過用馬字班句, 緣飾傳會耳. 此何足與議於古人之妙哉.”

11) 구양수 비지문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용표, 「歐陽修 碑誌文 分析을 통해 본 ‘簡而有法」, 『중국어연구』 15, 중국학연구회, 1990. 참조.

는 의미 때문에 여성 관련 비지문을 살필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이 두 편 가운데 특히 「瀧岡阡表」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sup>12)</sup> 일찍이 정조는 ‘古人の 문자 중에 절대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작품’이라면서 한유의 「張中丞傳後叙」와 구양수의 이 작품을 들고는 이 두 편을 『八子百選』에 수록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애석하게 여기기도 했다.<sup>13)</sup> 김창협 또한 ‘古來의 금석문자 가운데 다시 나오기 어려운 작품’이라며 한유의 「平淮西碑」와 구양수의 「상강천표」를 든 바 있다.<sup>14)</sup> 이밖에도 구양수의 「상강천표」가 조선후기 문인들에 의해 애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는 적지 않다.<sup>15)</sup>

조선후기에 들어서 碑誌文의 서술 주체인 남성 문인들은 「상강천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했다. 첫째, 「상강천표」가 부친 사후 60년, 모친 사후 17년 뒤에 지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양수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의 墓表를 세운 것을 두고 구양수 자신은 ‘감히 늦춘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非敢緩也, 蓋有待也]’이라 하였다. 즉 자신의 벼슬이 높아져 부모에 대한 追贈이 있기를 기다렸다는 말이다.<sup>16)</sup> 그런데 조선후기의 많은 문인들이 부모 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

12) 「南陽郡縣謝氏墓誌銘」 역시 조선후기에 명문으로 칭송받았다. 金柱臣은 특히 구양수의 文을 흠모하여 구양수의 이 글과 함께 「瀧岡阡表」·「豐樂亭記」·「醉翁亭記」·「縱囚論」 등 구체적인 글들을 들어 그에 대한 애호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散言」下(『壽谷集』卷11) 참조. 한편 趙顯命이 지은 「孺人鄭氏誌銘」(『歸鹿集』卷15)에서는 묘주의 남편인 韓光璋가 조현명에게 구양수의 「南陽郡縣謝氏墓誌銘」과 같은 묘지명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 南公轍은 구양수의 이 글을 본받아 「淑人趙氏墓誌」(『金陵集』卷17)를 짓기도 했다.

13) 正祖, 『弘齋全書』卷165, 『日得錄』文學(五), “古人文字, 有決不容復有對者, 韓之張中丞傳後叙、歐之瀧岡阡表是也. 八子百選中, 偶不入錄, 予至今惜之.”

14) 金昌協, 『農巖集』卷34, 「雜識」外篇, “古來金石文字, 有決不容復有對者, 韓之平淮西碑、歐之瀧岡阡表是也.”

15) 徐命膺, 『保晚齋集』卷11, 「季父牧使公墓碣」; 李德懋, 『靑莊館全書』卷51, 「耳目口心書」; 金柱臣, 『壽谷集』卷12, 「敬次叔父寄示韻(又并引)」; 李緯, 『陶菴集』卷26, 「豎阡表告文」; 李緯, 『陶菴集』卷14, 「皇考妣阡表」 등.

부모의 비지문을 지을 때 이 구절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다.<sup>17)</sup> 둘째, 「상강천표」는 형식상 모친의 傳言에 의거하여 부친의 德을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의 碑誌를 지을 때 자식이 부모의 德을 顯彰한다는 사실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자칫 그것은 至親에 대한 私情의 과잉으로 인해 객관성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런데 「상강천표」는 글의 대부분이 모친의 傳言을 그대로 기술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sup>19)</sup>

그런데 「瀧岡阡表」에 대한 조선후기의 기록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이 있으니, 이 작품이 士大夫家 여성들에게 널리 애호되었다는 점이다. 士大夫家 여성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자식에게 자신의 死後, 구양수의 「상강천표」를 본받아 碑誌文을 지을 것을 당부했다. 자식에게 자신의 비지문을 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 비지문이 모범으로 삼았으면 하는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에 士大夫家

- 16) 金柱臣, 『壽谷集』 卷12, 「敬次叔父寄示韻(又并引)」 “又嘗謂小子曰: ‘其所謂非緩而有待者, 爾曉其意乎?’ 小子昧不能對, 則先兄曰: ‘指累贈封耳.’” 한편 「상강천표」 문두에 있는 이 문장을 두고 ‘학문을 성취하고 문장이 노련해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李天輔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들 수 있다. “歐陽公猶不敢自信, 以待其學益成而文益老.”(『晉菴集』 卷6, 「與元華伯景夏」)
- 17) 李廷馨(1549-1607)의 「先君墓碣」(『知退堂集』 卷4), 金柱臣(1661-1721)의 「敬次叔父寄示韻(又并引)」(『壽谷集』 卷12), 李緯(1680-1746)의 「豎阡表告文」(『陶菴集』 卷26), 李天輔(1698-1761)의 「與元華伯景夏」(『晉菴集』 卷6) 등에서 이러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 18) 李天輔, 『晉菴集』 卷6, 「與元華伯景夏」 “子之傳其親者, 其言苟非必信於人, 則不可爲也. 是故, 歐陽公猶不敢自信, 以待其學益成而文益老.”
- 19) 비지문 작성시에 객관성을 문제 삼은 예가 적지 않은데, 이는 묘주에 대한 찬사 일색으로 비지문이 諛文으로 전락한 현상에 대한 반성 때문에 나타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비지문의 객관성을 문제삼고 있는 자료로 明末清初 黃宗羲의 「論文管見」附(『金石要例』, 中華書局, 1985.)를 들 수 있고 조선후기 尹鳳九의 「贈參判金公泰魯墓碣銘」(『屏溪集』 卷50), 朴弼周의 「六叔父通德郎府君墓表」(『黎湖集』 卷25), 南公轍의 「淑人吳氏墓誌銘」(『金陵集』 卷17)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비지문 작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보자.

우리 외증조할머니 尹夫人은 어질고 婦德이 있어 당시 사람들이 모두 女師라고 불렀다. 仲子 西浦公이 그 행장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 문장을 구양수의 「瀧岡阡表」에 견줄 만하다고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찍이 내게 그 글을 읽게 하여 듣고는 말씀하셨다.

“우리 할머니의 아름다운 덕을 숙부께서 밝혀 떨쳐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 보였으니 할머니는 德만 있으셨던 게 아니라 또한 훌륭한 아들까지 두셨던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늙어가면서는 아침저녁으로 경계하여 그 가르침을 거의 어기지 않고 있으니 나중에 내 행실을 적어 숙부가 우리 할머니를 기술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겠느냐?”<sup>20)</sup>

李天輔(1698-1761)의 「先妣墓誌」에 보이는 내용이다. 이천보의 모친이, 할머니의 德에 대해 숙부 金萬重(1637-1692)이 쓴 행장을 들어 모친 자신이 죽고 난 후 아들 이천보가 자신의 행장을 것처럼 지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만중이 지었다는 모친의 행장<sup>21)</sup>이 당시에 구양수의 「상강천표」에 견주어졌다고 했다. 이미 17세기부터 「상강천표」가 여성 비지문의 전범으로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南公輒(1760-1840)의 모친도, 남편 南有容(1698-1763)이 지은 시어머니의 행장<sup>22)</sup>을 들어 그것이 구양수의 「瀧岡阡表」에 비견된다고 하고, 자신이 죽고 나서 아들 남공철이 그와 같은 묘지명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한 일이 있다.<sup>23)</sup> 이와

20) 李天輔, 『晉菴集』 卷8, 「先妣墓誌」 “我外曾王母尹夫人, 賢而有婦德, 一世皆稱女師. 仲子西浦公, 述其行狀. 人謂其文章, 可比歐陽公瀧岡表. 先妣嘗命不肖兒讀而聽之曰: ‘吾祖母之懿範, 叔父能闡揚之, 傳示後人. 祖母不惟有其德, 又有其子也. 吾兒時, 受訓於祖母, 今且老矣, 夙夜警戒, 庶幾不墜其訓爾. 他日能述吾行, 如叔父之述吾祖母乎?’”

21) 金萬重, 『西浦集』 卷10, 「先妣貞敬夫人行狀」

22) 南有容, 『雷淵集』 卷24, 「先妣行狀」

23) 南公輒, 「先妣墓誌」, 『金陵集』 卷17: “記昔先君子嘗撰祖妣沈氏行狀, 而言取家大人與外大母之所以詔者, 用質於立言君子, 世皆比之歐陽公之瀧岡表, 而先妣

같은 사실을 통해 17세기 이래 사대부가 여성들이 자식에게 자신의 행장이나 묘지명을 지어 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였으며, 그 행장이나 묘지명의 準的이 바로 구양수의 「瀧岡阡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상강천표」의 어떠한 면모 때문에 이 글이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애호되었을까? 그 단서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상강천표」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 Ⅲ. 「瀧岡阡表」의 특징과 愛好 要因

「瀧岡阡表」는 구양수가 48세 되던 해에 썼던 「先君墓表」를 수정하여 64세 되던 해인 1070년에 쓴 墓表이다. 이 글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모두 조선후기 문인들이나 士大夫家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지거나 準的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篇法이 매우 簡嚴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傳言의 再演 기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情感에 호소하는 문장을 요령 있게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고 넷째는 작품에서 부각된 주제의식이 전통적 유교적 도덕률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먼저 이 글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자. 도입부와 결말부를 제외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傳言) 가난한 생활과 구양수에 대한 기대
- [2] (傳言) 부친의 孝
- [3] (傳言) 부친의 仁
- [4] 부모의 간략한 世系
- [5] 모친의 德
- [6] 조상에 대한 封贈 내력

---

令不肖讀而聽之. 仍流涕而言曰: ‘文如是足矣. 我死, 女爲銘誌, 能如此狀乎?’”

모친의 전언을 통해 부친과 모친의 德을 기술하고 구양수 자신이 현달하여 조상에게 封贈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조상의 德 때문이라는 것이 이 글의 主旨이다. [1]에서 [3]까지는 모두 모친의 전언을 재연하는 방식, 즉 모친이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1]에서는 구양수의 집안이 가난하였고 구양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도 모친이 수절한 이유는 모친이 자식 구양수가 장성하여 현달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에서는 부친의 孝誠을 알 수 있는 일화들, 이를테면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올릴 때 제물이 풍성한 것을 보고 ‘살아계실 때 변변찮게 봉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거나, 풍성한 주안상을 대하고는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 해도 그것을 대접할 부모가 없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술 등을 통해 부친의 효성을 드러내고 있다. [3]에서는 부친의 仁慈함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부친이 관리로 일할 때 사형을 당하게 된 죄인을 구할 방도를 강구하느라 밤마다 고심했다는 일화를 들고 있다. 모친의 德에 대해 기술한 [5]에서는 가난함을 편안히 여긴다는 모친의 말을 인용하여 검소하고 자애로운 모친의 형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밖의 [4]와 [6]은 객관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제 구양수의 이 글이 애호되었던 이유를, 이 글의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 글의 애호된 첫째 요인으로는 우선 篇法의 簡嚴함을 들 수 있다. 구양수의 글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호평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篇法의 간엄함 때문이다. 편법의 간엄함이란 구양수 산문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부각시키고자 하는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자질구레한 것들은 제외하고 서술하는 것을 가리킨다.<sup>24)</sup> 위에서 제

24) 김창협은 「雜識」 外篇에서 구양수의 「太尉文正王公神道碑銘」을 분석하면서, 구양수가 묘주 王의 행적에 대해 단순히 年月의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왕단이 재상을 지내면서 베푼 仁政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시한 각 분절 내에는 분절의 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다. 이를테면 분절 [2]에서는 모친의 전언이 모두 부친의 효에 집중되어 있고 분절 [3]에서는 부친의 仁과 관련한 에피소드만을 모친의 전언을 통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식이다. 또 추상적인 형용사 사용을 배제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술만을 일삼은 것도 이 글이 간엄한 글이 되도록 한 데 기여하고 있다. 구양수의 이러한 篇法의 간엄함은 司馬遷이 『史記』 列傳과 흡사하여 사마천의 精髓를 얻은 것이라 평해진 요인이기도 하다.<sup>25)</sup> 일반적인 비지문에서는 묘주의 객관적 공덕을 내세우기 마련인데, 내세울 만한 부친의 객관적 공덕이 없는 상황에서 구양수는 부친의 다른 면모에 주목했다. 즉 부친의 효와 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전혀 서술하지 않은 것이다. 부친의 평소 언행 가운데 그의 孝心이 절실하게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인자한 마음이 간절히 독자에게 생생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효와 仁의 이미지를 저절로 두드러지게 하였다.<sup>26)</sup> 그가 부친의 효와 관련하여 서술한 것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네 아버님은 모친상을 당한 지 일 년이 넘을 무렵이었지. 그런데도 정초에 제사를 지내시며 “제사를 잘 올려봐야 살아계셨을 때 잘못 모시는 것보다 더 못하구려!” 하면서 울곤 하셨단다. 가끔 주안상을 올리면, “옛날에는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여유가 생겼지만, 이미 늦었구려!”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단다.<sup>27)</sup>

이처럼 모친의 전언을 통해 드러나는 부친의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 
- 25) 茅坤, 『唐宋八大家文鈔』 卷51,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附註, “蓋歐得史遷之髓.”;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外篇, “歐得風騷太史之旨.”
- 26) 김용표, 「구양수 비지문 분석을 통해 본 ‘簡而有法’」, 『중국학연구』 5, 중국학연구회, 1990, pp.125-126.
- 27) 歐陽修, 『居士集』 卷25, 「瀧岡阡表」, “吾之始歸也, 汝父免於母喪方逾年. 歲時祭祀, 卽必涕泣曰: ‘祭而豐, 不如養之薄也.’ 閑御酒食, 卽又涕泣曰: ‘昔常不足, 而今有餘, 其何及也!’”

면서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은 부친의 孝이다.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인 孝가, 제사를 맞이하거나 풍족한 주안상을 대하는 부친의 태도와 관련한 모친의 전언 몇 마디로 기술됨으로써 구체성과 생동감까지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구양수는, 부친의 孝 및 仁에 초점을 맞추어 모친의 전언을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 전편에 걸쳐 주제의식의 간명함을 드러내고 있다.

「상강천표」가 애호된 두 번째 요인은 이 글의 傳言의 再演 기법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 부모의 간략한 世系(4)라든가 구양수 자신의 관직이 높아져 조상에 대해 행해진 封贈 내력(6) 등은 구양수가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 정보이다. 그밖에 모친의 덕에 대해 기술한 [5] 이외에는 모두 모친의 傳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5] 역시 서술 주체가 구양수 자신이기는 하지만 분절의 절반 이상을 모친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 구양수는 모친의 말을 보완하는 간단한 서술만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글은 부모의 세계와 조상에 대한 封贈 사실 등 객관적 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모친의 傳言에 기대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양수의 부친 歐陽觀은 구양수의 나이 4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구양수는 부친의 행적이나 德에 대해 직접 목격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부친 구양관은 推官이나 判官과 같은 末職을 지냈기 때문에 드러난 공적이 두 드러지지도 않았다. 부친의 행적이나 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부친의 墓表를 쓰기 위해 구양수가 택한 방법은 바로 모친의 전언을 직접 再演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傳言을 직접 인용하여 글을 구성하는 방식은 구양수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다.<sup>28)</sup> 구양수가

28) 구양수는 친구 梅堯臣(1002-1060)의 아내 謝氏夫人에 대한 묘지명 「南陽郡縣謝氏墓誌銘」에서 매요신이 편지로 보내 온 내용을 그대로 묘지명에 옮겨 오는 형식을 사용하였고, 「偃虹堤記」에서는 偃虹堤에 대한 記文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해주러 온 심부름꾼과의 대화를 통해 언홍제가 이루어지게 된 경과에 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寓言과 같이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도모할 때, 그리고 인물을 포함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여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상강천표」에 국한해 보자면 모친의 傳言을 再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장치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전언의 재연 기법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언을 재연하는 기법을 통해 전언을 하는 주체인 모친, 그리고 모친의 입을 통해 재인용하는 부친의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다. 특히 부친의 발언을 모친의 입을 통해 재진술하게 함으로써 독자는 이 글이 구양수가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약역하게 모친이 진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즉 실제 기술자인 구양수는 작품 안에서 사라지고 모친이 작품의 화자로 부각되어, 독자는 모친에 의해 이야기되는 부친의 형상과 목소리를 보고 듣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등장하는 비지문에서는 화자인 남성 문인이 여성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양수의 이 글에서는 모친의 입을 통해 모친의 德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더 나아가 부친의 행적과 德까지 모친의 입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 즉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남편의 행적과 德을 기술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의 행적과 덕, 그리고 여성 자신의 德을 드러내는 데 소용되는 발언 등을 직접 진술하는 여성의 형상은 단순히 남편과 孀家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는 존재로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조선후기 여성들이 자신의 사후 구양수의 「상강천표」와 같은 비지문을 지어줄 것을 자식에게 요구한 하나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애호된 세 번째 요인으로, 情感에 호소하는 문장을 요령 있게 구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至親에 대한 비지문은 기본적으로 작자와 묘주와의 관계 때문에 묘주에 대한 칭송 일색이 될 수도 있고 묘주에 대한 작자의 정감이 비지문에 과도하게 流露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

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특히 士大夫家 여성들에게 구양수의 「상강천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글이 至親을 대상으로 한 비지문이면서도 작자의 부모에 대한 정감이 적절히 구사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士大夫家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직접 언급한 예는 찾기 어렵지만 金錫胄의 다음 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我讀歐九瀧岡文	내 구양수의 「상강천표」 읽어보니
自敘平生少孤貧	스스로 기술한 평생, 어려서 부친 잃고 가난했지.
辛勤成立世其家	고생스럽게 입신하여 그 집안을 이었으니
教養皆由大夫人	가르치고 기른 건 모두 大夫人이었네.
嗚呼情至語亦至	아! 情이 지극하고 말 또한 지극하여
令人涕落沾衣巾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떨어어 옷깃 적시게 하네. <sup>29)</sup>

김석주는 이 시에서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기에 구양수를 길러 그가 입신양명하게 한 공의 대부분을 구양수의 모친에게 돌리고 있다. 구양수를 가르치고 기른 모친의 공덕을 적극 긍정한 것이다. 이 시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情이 지극하고 말 또한 지극하다[情至語亦至]’는 말이다. 「상강천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는 부친의 孝와 仁이라는 전통적 도덕 가치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다분히 情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인식한 언급이라 하겠다. 金錫胄 외에도 李德懋 역시 이 글을 두고 “슬픔과 眞情은 비지문에서 꼭 볼 수 있는 것이니 구양수의 「상강천표」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아름답게 여기는 뜻을 볼 수 있다”<sup>30)</sup>라고 한 바 있다. 이덕무의 말에 따르면 구양수는 이 글에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아름답게 여기는 뜻[先懿]’을 통해 眞情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구양수가 인용하고 있는 부친의 德에 대한 모친의 전언 태도 자체가 애뜻한데<sup>31)</sup> 이러한 모친의 전언 태도는 곧 구양수 자

29) 金錫胄, 『息庵遺稿』 卷2, 「挽趙教官娶叔宗著大夫人」

3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1, 「耳目口心書」, “凡文章惻怛眞情, 必於碑誄見之, 歐陽公瀧岡阡表, 先懿可見.”

신이 부친에 대해 갖고 있던 情을 모친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상강천표」가 애호된 네 번째 요인으로는 이 글에서 구현하고자 한 가치와 관련이 있다. 「상강천표」에서는 모친의 전언을 통해 부친의 ‘孝’와 ‘仁’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부친의 德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李緯의 「皇考妣阡表」가 「상강천표」에서 모친의 전언을 통해 부친의 덕으로 ‘孝’와 ‘仁’을 내세운 점을 그대로 본받고 있어 주목된다. 구양수의 글처럼 모친의 전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구절은 직접 구양수의 「상강천표」를 떠올리게 한다.

시아버지 議政府君께선 평소 네 부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우리 효자’라 하셨지. 시아버지께서는 또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막 자라나는 가지를 꺾거나 곤충 하나 죽이는 것도 仁이 아니란다.”라 하셨는데 (부친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셨단다. 한번은 내가 아무개 아이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네 부친께서, 유모가 그 자식을 떼어놓고 울음을 참으며 너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는 종일토록 측은해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식을 먹이자고 남의 자식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라 하셨지.<sup>32)</sup>

비록 李緯의 부친의 孝에 대해서는 조부의 말 한 마디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부친의 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조부의 입을 통해, 자라는 나뭇가지를 꺾거나 곤충 하나 죽이는 것도 仁이 아니라 하고 그런 말을 들은 부친이 한 번도 자라는 나

31) 구양수의 부친이 부모 생전에 풍족히 모시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 일화를 들고, 전언자인 모친이 부친의 孝誠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한 것이나 獄事 처결 때 사형에 처한 죄인을 구해보고자 고심하던 부친에게 “살릴 방법도 있어요?”라 물어 부친의 고민에 동참하는 등 전언자인 모친은 부친의 孝誠과 仁慈함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32) 李緯, 『陶菴集』 卷14, 「皇考妣阡表」, “皇舅議政府君居常語及汝父, 必曰: ‘吾孝子.’ 皇舅又嘗詔童幼曰折一方長殺一昆蟲非仁也, 自幼時未嘗一有是焉者. 惟我與某兒夫, 汝父見乳者離絕其子而收涕哺汝, 惻然終日曰: ‘食己子而飢人之子, 是可忍耶?’”

못가지를 꺾거나 곤충 하나도 죽인 일이 없다고 한 것이 하나이고, 자신의 자식에게 젓을 먹이기 위해 유모의 자식이 젓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측은해하던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처럼 부친의 德으로 孝와 仁을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모친의 전언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 등은 「상강천표」를 의식한 기술이라 하겠다.

#### IV. 결론

이상으로 구양수의 「상강천표」가 조선후기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어떠한 특징 때문에 애호되었는가에 대해 살피고 실제 조선후기 비지문 창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구양수의 비지문은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조명 받았는데, 특히 그의 「상강천표」는 남성 문인들과 士大夫家 여성들이 공히 애호한 名文이다. 남성 문인들은 구양수의 이 글의 篇法의 간섭함에 주목하는가 하면 이 글이 구양수 부친 사후 60년 뒤에 지어졌다는 점에 주목, 부모의 비지문을 지을 때 이 글의 제작 경위를 빈번히 언급하였다. 또 글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 이 글에서 구사하고 있는 傳言의 再演 기법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에 반해 士大夫家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 글에 보이는 傳言의 再演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나 한다. 즉 구양수의 이 글에서 여성 화자인 모친은 종래 남편이나 시가에 종속된 여성상을 넘어서서 남편의 德을 기술하는 주체성을 띠게 되었으며 여성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여성 자신의 德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 사이에서 구양수의 이 글이 애호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양수의 이 글에서 구현하고 있는 여성의 德이나 여성 화자를 통해 구현되는 남성의 덕이 전통적 유교 도덕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남녀 독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緯의 부모에 대한 비지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에 구양수의 「상강천표」가 실제 비지문 창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록 조선후기의 여타 비지문에서 발견되는 「상강천표」의 영향 요소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조선후기에 구양수의 이 글에 대한 애호나 李緯 등의 비지문 등을 통해 볼 때 구양수의 「상강천표」가 조선후기 비지문, 특히 부모에 대한 비지문을 지을 때 하나의 주요한 準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조선후기에 전통적 가치를 지향한 비지문이 구양수의 「상강천표」를 모범으로 삼아 전언의 재연이나 대화문의 인용 등 ‘구체적 기술을 통해 추상적 전통 가치를 구현’하는 기법적인 변화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 <參考 文獻>

- 金萬重, 『西浦集』, 『한국문집총간』 148.  
 金錫胄, 『息庵遺稿』, 『한국문집총간』 145.  
 金柱臣, 『壽谷集』, 『한국문집총간』 176.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南公輓,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  
 朴弼周, 『黎湖集』, 『한국문집총간』 196.  
 徐命膺, 『保晚齋集』, 『한국문집총간』 233.  
 尹鳳九, 『屏溪集』, 『한국문집총간』 203.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8.  
 李 緯, 『陶菴集』, 『한국문집총간』 195.  
 李廷馨, 『知退堂集』, 『한국문집총간』 58.  
 李天輔, 『晉菴集』, 『한국문집총간』 218.  
 正 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7.  
 趙顯命, 『歸鹿集』, 『한국문집총간』 212.  
 歐陽修, 『居士集』, 中國書店, 1986.

茅 坤, 『唐宋八大家文鈔』, 서울대도서관소장본.

黃宗羲, 『金石要例』, 中華書局, 1985.

강혜선, 「조선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김기림, 「조선시대 여성묘지명에 나타난 서술원리와 그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김보경, 「이색의 여성 인식-여성 묘주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8, 우 리한문학회, 2003.

김용표, 「구양수 비지문 분석을 통해 본 ‘簡而有法」, 『중국학연구』 5, 중국 학연구회, 1990.

손여림, 「고려시대 여성 묘지명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3.

안순태, 「南公轍의 傳狀碑誌文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Abstract

*Suanggangqianbiao(瀧岡阡表) of Ou Yangxiu(歐陽修) and epitaphs  
in the latter Joseon period / An Soon T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special feature of the epitaphs in the latter Joseon period under the influence of Ou Yangxiu's epitaphs. Ou Yangxiu's epitaphs were esteemed in the latter Joseon period, especially by Kim Changhyup[金昌協]. Epitaphs for wo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had two trends: The one is that it embodied the traditional feature of women resting on the basis of traditional Confucian morals. The other is that it described daily experiences emotionally. The general trend of epitaphs for wo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followed the former. I studied how Ou Yangxiu's Suanggangqianbiao[瀧岡阡表] did influence to the epitaphs for wo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Suanggangqianbiao[瀧岡阡表] is the epitaph written after 60 years since Ou Yangxiu's father had passed away and based on Ou Yangxiu's mother's message. This writing influenced on the epitaphs and especially on the epitaphs for wo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as following: A. This writing was renowned to the illustrious official women and they asked their sons to write an epitaph like this writing for them. So we can notice that the writing epitaphs for women was a more general current situatio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than the former period. B. The literary men set forth this writing as a precedent when they wrote epitaphs for their parents. C. The description technique of Ou Yangxiu's Suanggangqianbiao[瀧岡阡表] was regarded as a good exemplary by the literary 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when they

---

\* Lecturer of Sejong Univ. / ansunte@hanmail.net

wrote epitaphs for women or parents.

Ou Yangxiu's Suanggangqianbiao is the epitaph that praised the virtue of his parents. Though Suanggangqianbiao represented the traditional Confucial moral, Ou Yangxiu described his parent's virtue in detail and emotionally. And Ou Yangxiu let his mother be highlighted as a active speaker in his epitaph. So we can recognize that Suanggangqianbiao enlightened on the general epitaphs or the epitaphs for women in the latter Joseon period.

**【Key words】** Ou Yangxiu[歐陽修], Suanggangqianbiao[瀧岡阡表],  
epitaphs, epitaphs for parents, Confucial moral

투고일 : 11월 8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